

# '스포츠 아트' 관심집중

### 평창, 피겨 팀이벤트 표 불타... 각국 스타 선수들 대거 출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종목인 피겨스케이팅에서 유일한 단체종목인 팀이벤트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출전이 확정되면서 팀이벤트 티켓 판매량이 늘고 있다.

2일 평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팀이벤트(남자 싱글 쇼트, 페어 쇼트 프로그램)와 10일 팀이벤트(아이스댄스 쇼트댄스, 여자싱글 쇼트, 페어 프리), 12일 팀이벤트(남자싱글 프리, 여자싱글 프리, 아이스댄스 프리)의 입장권 B석이 출전국 확정 이후 1000장 이상 팔렸다. 팀이벤트 티켓 판매율은 1일 현재 72%(10, 12일), 58%(9일)다.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19·러시아)가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8 유럽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고 있다.

팀이벤트는 10개국이 참가해 남녀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에서 기량을 겨루며 상위 국가에 메달을 수여하는 국가대항 이벤트다. 각국의 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평창올림픽 팀이벤트에는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한국 등 10개국이 출전하며 국가별로 최대 10명의 선수가 남녀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피겨스케이팅 티켓 중 남녀, 싱글 종목과 갈라쇼 등은 현장 판매분 일부만 남아 있다.

팀이벤트에는 한국대표팀의 차준환

(남자싱글)을 비롯해 일본 남자피겨의 슈퍼스타 하뉴 유즈루, 러시아 피겨요정 메드베데바 등 스타플레이어들의 출전이 예상된다.

여자싱글의 메드베데바와 자기토바(러시아), 남자싱글의 하뉴 유즈루와 우노 쇼마(이상 일본) 네이션 첸(미국), 아이스댄스 세계최강 테사 버추·스캇 모이어(캐나다)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프랑스) 등

유망 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 이정수 피겨 스포츠매니저는 "전통적인 인기 종목인 남녀싱글 종목을 제외하고는 피겨의 상당한 팬이 아니면 개인 경기인 피겨에 단체인지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팀이벤트는 남녀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전 종목을 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라고 말했다.

/뉴시스

## 메수트 외질, 아스날에서 3년 더 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날이 메수트 외질과 재계약에 성공했다.

아스날은 2일(한국시간) 외질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질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스날에서 3년 더 뛰게 됐다"고 전했다.

영국 스포츠포츠는 "외질이 주급으로 35만 파운드(약 5억3000만원)를 받는다. 이는 아스날 역대 최고 주급이다"고 말했다. 외질은 2021년 6월까지 아스날 유니폼을 입는다.

오는 6월 아스날과 계약 만료를 앞둔 외질은 재계약에 난항을 겪어 이적설이 돌았다.

파리생제르맹(PS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알렉시스 산체스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외질 역시 팀을 떠날 것이라는 설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을 통해 이적설을 모두 일축했다.

외질은 "자부심을 느낀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좋



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고 말했다.

아스날은 외질의 재계약을 이끌어내면서 한숨 돌렸다.

산체스의 이적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됐지만 외질의 재계약과 피에르 오바메양 영입으로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 K리그, 아시아 1위·세계 28위

K리그가 7년 연속 아시아최고 프로축구리그로 인정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IFFHS의 자료를 인용, 2017 세계 프로축구리그 순위에서 K리그가 전체 28위로 아시아 축구연맹(AFC)소속 프로축구리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FFHS는 지난달 14일 2017년 세계 프로축구리그 순위를 공개했다.

1991년부터 세계 프로축구리그의 순위를 집계한 IFFHS는 각국 상위 5개 클럽 성적의 환산 점수로 리그의 순위를 결정한다.

K리그는 2017년 순위에서 환산점수 528.5점을 획득해 사우디 아라비아(526점·29위), 일본(471.5점·31위), 중국(403점·38위), 이란(388점·46위)을 따돌리고 아시아 수위에 올랐다.

이로써 K리그는 7년 연속 아시아 최고리그의 자리를 지켜냈다.

스페인인 프리메라리가는 1195점으로 8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질 세리에A가 2, 3위로 뒤를 이었다.

/뉴시스

## 툼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여름 개봉 확정

첩보액션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여섯 번째 작품이 여름 개봉을 확정했다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감독 크리스토퍼 매쿼리)이다.

이 시리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톰 크루즈가 또 한 번 출연하고, DC 엔터테인먼트 슈퍼 히어로 시리즈에서 '슈퍼맨'을 연기하고 있는 헨리 카빌이 새롭게 합류했다.

카빌은 '이선 헌트'(툼 크루즈)를 지지하기 위해 고용된 '허거스트 워커'를 연기한다.

이와 함께 '미션 임파서블'부터 12년째 시리즈를 지켜오고 있는 천재 IT 전문가 '벤지 던' 역의 사이먼 페그, 모든 시리즈에 출연한 헨트의 동료 '루터 스티켈' 역의 빙 라메스도 합세했다.

이번 작품의 부제인 '폴아웃(Fallout)'은 '낙진' ' 좋지 못한 결과'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크리스토퍼 매쿼리 감독은 "폴아웃은 이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한 일들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그의 모든

선택이 이번 영화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에는 이선 헌트가 헬리콥터에 위태롭게 매달린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1996년부터 시작해 누적 수익 28억 달러(약 3조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다.

이번 작품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으로 세계관 확장에 기여한 매쿼리 감독이 다시 한 번 메가폰을 잡았다.

/뉴시스

## 트와이스, 日 광고계 접수... 소프트뱅크 통신사 모델 발탁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광고계도 접수했다.

2일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통신사 'Y!mobile(약칭 와이모바)'의 새로운 TV 광고인 '와이모바 학교' 시리즈의 다섯 번째 광고 '전학생'편의 모델로 발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모바 학교' 시리즈는 선생님 역으로 일본 유명 여배우 '키리타니 미레이', 학생 역으로 배우 '사이토 타쿠미', 개그맨 '데가와 테츠로'가 활약하며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CF"라며 "트와이스는 이 시리즈의 새로운 '전학생'편을 통해 일본에서 첫 CF 모델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광고에서 트와이스는 멤버 각각 개성 넘치는 의상을 입고 등장, 와이모바 학교를 걸터앉은 세계로 물들인다. 이와 함께 '와이모바 학교' 시리즈



의 포인트인 'Y.M.C.A.'를 패러디한 광고 음악에 맞춰 학교 안 곳곳에서 'TT 포즈'를 녹인 귀여운 댄스도 선보인다.

트와이스는 'Y!mobile'과 팀명 트와이스의 '와이'에서 따온 'Y' 포즈도 선보이며 또 하나의 유행을 예고한다.

/뉴시스

## 나얼, 세 번째 싱글 '사운드 닥트린' 8일 발매

보컬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 나얼(본명 유나얼·40)이 세번째 싱글을 발매한다.

2일 소속사 톰클레이뮤직은 "나얼이 8일 정규 2집의 세 번째 싱글 'Sound Doctrine (사운드 닥트린)'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드 싱글 '기억의 빈자리'에서는 1980년대 신스 팝 발라드, 두 번째 싱글을 통해 나얼 특유의 솔(Soul) 성향을 담은 리메이크 역사 'Gloria(글로리아)'를 선보였다면, 세 번째 싱글로는 그루브가 강조된 80년대 모던 소울 스타일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얼은 세 번째 싱글에도 여러 버전의 곡을 담았다. 8cm 미니 CD로 제작해 한정 발매한다.

한편 나얼은 1999년 '앤섬' 1집으로 데뷔한 뒤 윤건과 함께 한 듀오 '브라운 아이즈'를 거쳤다. 2003년부터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로 활약 중이다.

나얼은 지난해 11월 리드 싱글 '기억의 빈자리'로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이어 12월 두 번째 싱글 '글로리아(Gloria)'를 선보인 바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